의무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재무금융학과 황지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금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주무관청 미지정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
2) 과목 불균형 문제
3) 학교 금융교육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교육 인적 자원 확보 어려움
Ⅲ. 의무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당위성
1)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
2) 이전 연구자들의 방안과 그 한계
Ⅳ. 금융교육 강화방안 – 금융선진국의 특징을 바탕으로
1)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특징
2) 금융선진국 금융교육 특징을 한국 금융교육에 차용
Ⅴ. 기대효과
1) 금융교육으로 인한 금융웰빙 향상
2) 보편적 교육으로 저소득층 금융소비자 격차 해소 방안으로써 의무교육
3) 금융선진국 도약 계기, 국가경쟁력 상승 기대
Ⅵ. 결론
1) 요약
2) 전망

Ⅰ. 서론

>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로버트 기요사키, 2018 : 26)

20년이 지나도록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이고,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이다. 책이 출시되던 시기에는 부자 아버지의 충고를 몸소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에는 금융위기를 몇 차례 경험하며 누구나 체감하는 말이 되었다.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 중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초저금리를 겪으며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어 전 국민이 주식에 열광했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빚투', '영끌',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났다. 대중들의 금융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금융전문패널이 나오던 프로그램과 달리 "자본주의학교", "개미는 오늘도 뚠뚠" 같은 연예인과 청소년이 주축으로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황금시간대에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상향으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됨과 동시에 한국에는 금융과 관련된 폐단이 전 연령층에서 뒤따르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가상화폐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영끌[1]로 빚더미에 깔렸다. 중년 세대는 은행 예금과 부동산만 추구하여 노년을 대비한 연금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 자금 확보가 안 되고 노후가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여전히 2021년 기준 1,680여억 원(금융감독원, 2022.04.20.)으로 여전히 큰 수준이고, 신용불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배경 중 하나로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교육 미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 보고서는 금융교육 중에 의무교육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교육 현황과 금융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금융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융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발전에 있어 본 보고서가 보탬이 되어, 기본적인 금융교육의 미비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금융경쟁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기 기대한다.

Ⅱ. 본론

1. 한국 금융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초중고생 15,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시한 초·중·고 경제이해력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초등학생 58.09점, 중학생 49.84점, 고등학생 51.74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안병준, 2021.11.10.). 초등학생들이 그나마 가장 나은 점수를 받았고, 고등학생들은 50점을 간신히 넘겼다. 중학생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금융·경제용어도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비한 금융교육 과정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 미지정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

(1) 주무관청 미지정 문제

먼저 한국은 G20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주무 관리 부처도 불분명하다. 또한,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차 국가금융교육전략 개발 및 시행 초기 단계로 분류되어 아시아 내에서 이미 국가금융교육전략을 시행하고 있거나, 수정 개선을 통해 2차 전략단계에 들어가 있는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 뒤쳐져 있다(OECD, 2013 : 74). 한국이 현재 금융교육을 주도할 부서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과정 문제

그렇다 할 주무관청이 정해지지 않은 와중에 운용 중인 교육과정 또한 문제이다. 현 금융교육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따른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 교육과정과 비교해 금융교육과정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서 구현하여 시민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지만(김경모, 2022 : 48), 여전히 아쉬운 실정이다.

---

1)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빚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낸 사람들을 뜻함.

첫 번째로 학교 금융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이 빈약해졌다. 한국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교과는 초등학교에서 '사회'와 '실과' 중학교는 '사회'와 '기술·가정' 고등학교는 '통합사회'와 선택 과목인 '경제', '기술·가정', '실용경제'가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축소되었다. 금융교육에서 목표로 제시하는 성취기준 수를 비교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 1개, '실과' 3개로 4개 있었으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1개로 줄었다. 이렇게 후 순위로 밀려난 금융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금융교육을 학습하지 않고,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어 제한된 학기 내에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재화나 서비스 같은 기초적인 용어도 구분하지 못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변한 부분은 없지만,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 무리한 변동이 교사와 학생을 곤란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3학년 시기에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1 '사회'의 영역에 있던 내용을 하향 위계화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변동이 현 교육과정 개정 전까지 현장에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것임이 분명한데 해당 부분을 보완 없이 놔두었다는 것은 문제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09년 교육과정과 2015년 교육과정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가 폐지되고 '통합사회'가 신설되면서 금융교육 내용이 많이 감소 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에서는 하나의 단원 전체가 금융교육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는 성취기준 1개로 줄었다. 선택 과목인 '경제'와 '실용경제' 과목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박형준, 2017 : 85~90). 그러나 실질적인 과목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시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자는 2010년 22.8%, 2015년 2.5%, 2020년 2.26%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제 과목을 어렵게 생각한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 하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응시자 수가 적은 경제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응시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저학년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지 않아 간단한 개념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고, 중학교 시기에는 과거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내려보내어 교사들도 교육 기간 내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고등학교 금융교육이 선택 과목에서 비로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하면 대학 진학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외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통사회 과정만 이수하게 된다면 금융교육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교육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수, 집중적인 시간 배정과 과도한 교육내용으로 제대로 된 학습 단계를 밟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2) 과목 불균형 문제

다른 문제로는 학교 금융교육 내용이 소비와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 영역에만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소비(지출) 영역이 4개(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 의사결정 영역이 2.5개 (27.8%)로 나타났다(박형준, 2017 : 97-101). 저축 영역과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의 성취기준은 전혀 없었다. 미국 금융교육은 소비, 소득, 신용, 저축, 금융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의 6개 영역으로 이뤄진 다양하게 분화하여 교육하는 것과 달리 한국 금융교육 성취기준의 75%는 소비생활을 다루고 있어 전형적인 금융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금융과 관련된 학습을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에서 가능하지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고 사회와 기술가정에 일부 단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금융교육 수업 시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3) 학교 금융교육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교육 인적 자원 확보 어려움

(1) 학교 금융교육의 정체성 확립 문제

한국의 금융교육은 교육과정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방식 문제도 지적받는다. 한국 금융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체성 면에서 단편적인 경제개념 중심의 '경제학원론'에 기반으로 내용 체계를 편성 해왔고, 학교 금융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체계는 학생들에게 서술적, 이론적, 기하학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경제 현상과 접목시키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도 크다. '경제학 교육'은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의 이해와 탐구에 있고 '경제교육'은 경제사회화 과정을 통한 경제 시민의 양성에 있다는 정체성을 고려할 때(최종민, 2019 : 5-15), 학교 금융교육의 패러다임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학교 금융교육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숫자 계산을 하는 경제 이론과 시험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의 학생들이 금융교육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고 마치 금융·경제를 고상한 학문의 영역으로 치부하게 했다. 학교에서 해야 할 금융교육은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누구나 겪게 될 상황을 미리 학습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교육 인적 자원 확보 어려움

게다가 교사들마저 금융·경제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범대학에서 역사나 지리를 전공한 교사는 경제학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의 경우도 필수인 한두 과목만 수강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종민, 2019 : 15).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10명 중 8명이 '경제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교 경제교육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교사 591명 중 30.1%는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선택했고, 19.3%는 '자료 수집 및 선택의 어려움'을 선택하여 대상 교사들의 절반에 가까운 49.4%가 경제교육 교수 방법(다양한 교수법, 적용, 자료 수집 및 선택) 측면에서 학교 경제교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교육 내용 이해(경제학 이론 및 현실 경제 이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교사도 41.3%로 나타났다(김동진, 2022 : 94). 이러한 문제점은 교사 재교육과 금융교육을 위한 인력 양상이 필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의무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당위성

1)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금융교육은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장기적인 교육이 효과를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금융습관의 형성을 위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금융교육은 태도, 습관, 의식에서 모두 효과가 있고, 교육 효과는 지속적인 교육 후, 일정 기간 경과 해야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상미 외, 2016 : 169-171). 그리고 간단한 금융교육과 경험만으로도 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을 조회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적극적인 신용등급관리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노혜민 외, 2017 : 19-20).

마스터카드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이해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0위권

밖으로 중간에 못 미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횡령 등 시스템적인 금융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금융시스템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즉, 개인과 국가 모두 금융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다른 국가들이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볼 때, 한국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금융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경제 · 금융교육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무임승차를 덜 하게 되고, 사회적 선호는 증가한다는 점(McCannon, 2014 : 61-62)도 금융교육 강화에 근거가 된다.

의무교육 내 금융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금융이해력 측정 사례가 있다. 2013년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에서 제작한 BET(Basic Economics Test)를 사용하여 한국 4~6학년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을 비교했다. 결과는 한국어로 번역된 BET에서 한국 학생은 A, B형으로 나뉜 조사에서 A형 평균 15.95개, B형 평균 14.59개를 맞춰 미국 학생들의 A형 평균 14.62개, B형 평균 13.86개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여타 다른 요소를 고려하면 대체로 한국의 학생들과 미국의 학생들은 비슷한 경제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수치는 세부적인 내용이다. 양국의 조사 결과에서 정답률이 크게 차이 나는 문항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금융 내용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한국 학생이 더 높은 정답률을, 반대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않는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더 낮은 정답률을 받았다(한진수, 2013 : 142-143). 이는 한국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운 금융·경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높은 이해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학교 의무교육 내에서 금융교육의 강화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전 연구자들의 방안과 그 한계

해당 주제의 선행 연구자들 또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교육 필수화를 주장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교육에 있어서 지침으로 쓰이던 2020년 <초 · 중 · 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교과 수업에서의 활용", "자유학기(년)제에서의 활용" 등으로 개정하면서 과거 금융교육표준안이 국가 교육과정 내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던 것에 후퇴하였다(조승모, 2022 : 173). 이는 연구자들도 현실의 벽에 막혀 타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단편적인 방안일 뿐,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 특히나 "자유학기(년)제에서의 활용"의 경우,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는 참여형 수업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결국에는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금융·경제 분야가 선택받을 가능성은 낮다. 금융교육은 의무교육 내에서 빠짐없이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교과 수업에서의 활용"은 모두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아직은 역부족이다.

3. 금융교육 강화방안

1)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특징

(1) 국가 주도의 금융교육전략 수립 및 법령 개정과 적극적 예산 지원

① 미국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법령으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미국은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금융교육위원회의 의장이 재무부 장관인데, 한국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인 것과 비교하면 상위부서에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금융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금융교육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기구의 자발적 참여로 발전했다. 미국의 민간기구로는 경제교육협의회(CEE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와 점프스타트개인금융(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anance Literacy)가 있다. 경제교육협의회와 점프스타트는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성취기준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금융교육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학교, 150여개 비영리 단체 등이 금융교육 자료 제작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② 영국 :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교육의 체계를 재정비했다. 영국은 미국이 비영리 단체의 활동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공적 기구와 민영기구가 모두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③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 국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금융교육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부 등 다수의 부처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금융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 호주 : 호주는 급증한 개인파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교육의 부재를 들며 2005년부터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강화를 하였다.

국가 차원의 중요성 인식은 금융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모종의 사건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사태(IMF사태)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고 금융교육은 뒷전이었다. 2015년에 이르러서야 금융교육협의회의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간략하게 선포하는 데에 그치며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에 금융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교육과정 수정이 점차 이뤄진다고 해도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수준이다.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민간기구나 연구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는 점차 퇴행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의제 설정은 금융교육의 첫걸음이므로 꼭 필요하다.

(2) 범교과 · 다학문적 학습

① 영국 : 영국에서 금융교육을 대표하는 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사회, 실과, 기술·가정 과목을 모아 놓은 과목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고 수학과 시민의식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하게 하였다(이윤호, 2021 : 42). 수학과 ICT과목에서 금융교육은 손익 계산, 이자 계산 등을 배운다.

②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사회과학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사회·수학·영어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을 반영한 다학문적 · 범교과적 교과 과정 및 방과 후·교외활동을 이용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③ 호주 : 호주 금융교육은 수학 과목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 중학교 수학 교과 과목의 교육 목표에서부터 "개인과 금융에 대한 우선순위를 스스로의 예측을 통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수학 교과목 내에서 '돈과 금융수학'을 포함한 7가지 내용요소를 나선형 교과과정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그 깊이만 더해가는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연금이나 투자, 소비자 대출 복리를 주제로 하여 그 안에 수학적 개념을 매 학년 다루면서 금융과 융합된 내용을 수학 교과에서 강조한다(고호경 외, 2016 : 327-328).

범교과 · 다학문적 학습으로의 접근은 금융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도

충분한 시간을 금융교육에 쏟을 수 있고 금융교육이 모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점이 있다.

(3) 교사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① 미국 : 경제교육협의회는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200여개의 지부를 통해 매년 55,000명의 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박형준, 2017 : 91).

②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Financial Literacy Hub for Teachers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발부터 실행, 평가, 연구의 일원화를 이뤄,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한 교사교육을 하고 있다(최윤정, 2018 : 82-84).

앞서 소개한 금융교육에 힘쓰고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금융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교육에 후발주자로 금융선진국들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교육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2) 금융선진국 사례에서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교육에 차용

(1)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각자 금융교육을 총괄하는 주무관청이 있다. 주무관청의 지휘 아래 법령을 재정비했고, 금융교육전략 시행을 위해 적극적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②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금융교육을 주도하는 주무관청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한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협의회가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로 알려져 있는데, 경제교육지원법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의 주무관청으로 설정되어 있어 혼돈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금융교육을 주관할 부서를 확정하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협의회를 주관 부서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이곳에 소속위원회로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교육협의회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연구단체, 민영기구들의 참여가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2010년 비법정 민관 합동 협의체로 설치된 이후, 2015년 공식기구로 발족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2021년 3월에야 법적 기구로 지정되어 2022년 6월에 교육부와 여러 연구단체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실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의 활동이 단순 권고안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력과 금융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

(2)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학습(다학문 · 범교과적 학습)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

① 금융선진국들은 금융 학습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고, 많은 시수를 배정하지 않아도 이미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에서 금융 관련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금융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② 현재 한국은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어서 기존 과목을 통폐합하여 재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 과목의 독립적인 신설은 지속적인 의

논 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금융 과목 개설이 가장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존재하는 교과목들에서 금융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출간한 '중 · 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를 활용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교육과정에서 '중 · 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가 발간된 지 3년이 되었지만, 2022년 11월 19일 기준 조회수가 288회에 불과하여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금융교육 주무관청에서 적극 활용을 지시한다면 배급에 속도가 날 것이다. 또한, 연구단체, 민영기구들과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개선 과정,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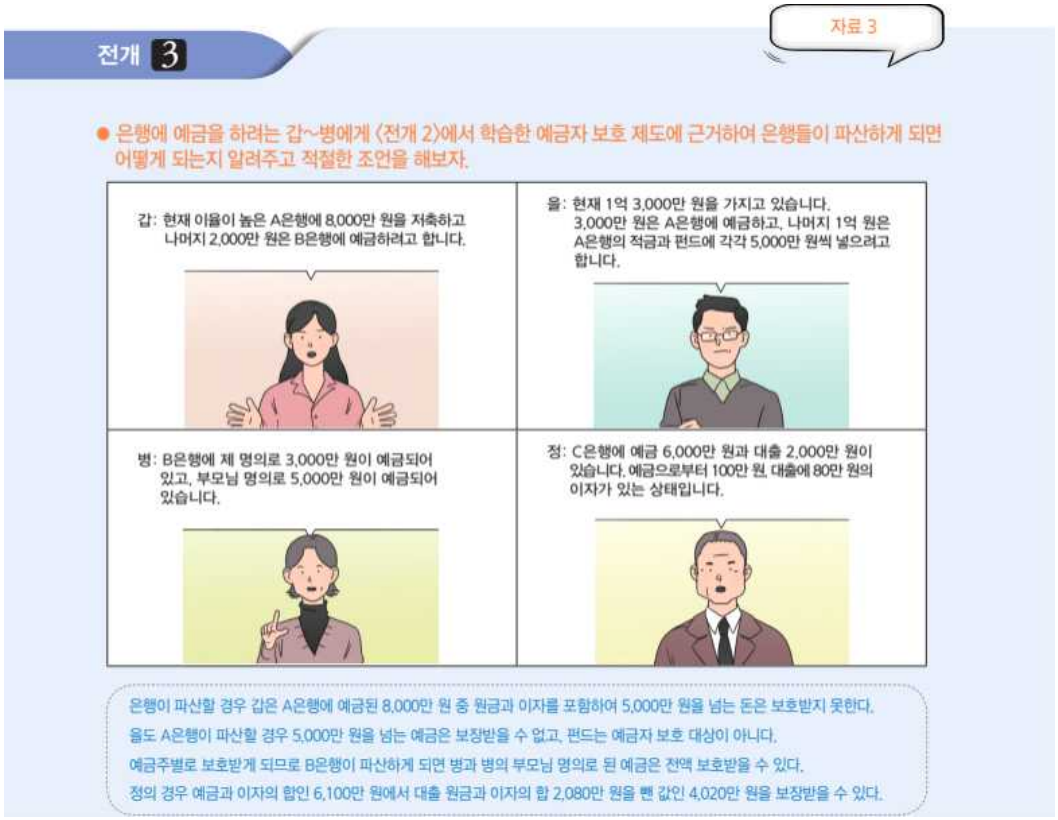
교과	관련 단원	금융교육 영역(표준안)	금융교육 주제
언어와 매체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1. 금융과 의사결정	금융정보의 활용
수학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2. 수입과 지출관리	가처분 소득과 예산 수립
수학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3. 저축과 투자	단리와 복리
영어	글을 읽고 세부정보 파악	4.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과 신용카드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	3. 저축과 투자	예금자 보호 제도
정치와 법	개인 생활과 법	4. 신용과 부채관리	대출과 부채
사회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5. 위험관리와 보험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할
한국지리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	5.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 후의 금융생활
생활과 윤리	문화와 윤리	2. 수입과 지출관리	사회 책임 투자(SRI)
창의경영	기업가 정신과 창업	2. 수입과 지출관리	자영업의 위험과 보상

(금융감독원, 2019.12.17.)

금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어나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저축과 개인 재무에만 편중되어있던 금융교육 영역도 비교적 확장되어 다양한 주제로 본 과목 관련 단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당 교안의 대표적인 활용 방안으로 한국사 과목을 예로 들면, 현대사를 배우면서 1995년에 공포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범교과 금융 교육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교과서 속 금융"에서 발췌한 예시이다.



(금융감독원, 2019.11.29.)

해당 교안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개인이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한 은행에서 개인이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금리가 높다고 한 은행에 모두 예치하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며 예금자 보호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학습할 수 있다. 추가로 이 교안에는 동영상 자료와 각종 보도자료 등이 포함되어있어 다방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 인력 확보 필요

① 금융선진국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나라마다 각자 사정에 맞게 금융교육을 위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재교육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② 한국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생명보험협회 등 다양한 민영기구가 존재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영국, 싱가포르의 방식보다는 미국의 방식에서 착안하여 민간기구와 연구단체 등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금융교육개선이 필요하다.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하여, 민간기구와 연구단체 교류를 통해 금융교육 자료 개발에 힘써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수업에 참고하도록 장려한다. 한편, 금융교육과정이 불완전한 실태이므로 금융교육과정의 제작과 더불어 수업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

③ 민영기구의 활성화와는 별개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처럼 교사 인적교류 네트워크망을

설치, 외부의 금융교육기관과의 연결로 금융교육 인적차원의 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융교육 인력을 충원할 방안으로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하여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금융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금융교육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금융교육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금융교육 방식에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는 문제점에서 지적됐던 경제학원론 기반의 교육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 – 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방식은 금융교육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는 금융이해력이라는 교육 목표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주제를 교과 과정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주체자로서 다양한 경제 현상에 질문을 던지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될지에 관련한 것이다.

근무지	성프란치스코 병원	브리티쉬 캐쥬얼 옷가게	실버스타 전자상가
직종	인턴	판매&재고관리	판매&재고관리
근무 시간	30	35	40
조건	주말 근무 없음	일부 야근&주말근무	화-토 근무(야근 없음)
시급(주급)	$9.5	$8.75	$8.25
자발적저축계좌[3]	전직원	전직원	정규직만 가입 가능

<그림Ⅳ-1> 활동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최윤정 외, 2015 : 229)

학생들은 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시급이나 조건 등에 따라 선택이 갈렸다. 교사는 이러한 일자리가 시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소득, 세금, 인적자본에 대해서 학습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책정하고, 학생들은 노동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며 장기간 노동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연구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했음에도 학생들은 몰입도가 높았고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말한다(최윤정 외, 2015 : 229).

실질적인 경험과 관련된 학습은 이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금융교육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 직접적으로 겪게 될 상황과 동떨어진 거시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소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소주제를 통한 금융 학습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일자리 측면에서 언급했지만, 한국형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면 한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전세'에 관한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의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3. 기대효과

1) 금융교육으로 인한 금융 웰빙 향상

연구사례에 따르면 금융지식의 향상은 금융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금융이해력 향상은 금융 웰빙[2]에 도움이 된다(한진수, 2022 : 278-279). 돈이 충분히 많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

2) 금융 웰빙이란 개인이 현재 및 미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더 나

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돈이 한정적이라면 있는 돈을 자신의 통제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교육의 강화로 인해 금융지식의 향상은 한정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여주고 재무적 안정감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2) 보편적 교육으로 저소득층 금융소비자 격차 해소 방안으로써의 의무 교육

한국개인신용(KCB) 발표에 따르면 금융지식 차이는 신용등급과 신용지식에 차이를 야기하며 이것이 저소득 · 저학력 계층의 신용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도시, 농촌,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 최고 1.5등급까지 신용등급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조영석 외, 2010 : 1196-1197).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체계적인 의무교육이라는 보편적인 금융교육의 확대가 국민의 금융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취약 소비자 문제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박주영 외, 2020 : 53)를 보면 취약 소비자들은 금융 경험이 낮음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금융과 관련된 간접 경험을 쌓아둔다면 취약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금융선진국 도약 계기, 국가경쟁력 상승 기대

(1) 금융교육은 금융경쟁력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개인에게 하는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경쟁력을 향상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국가금융경쟁력의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1) 요약

한국 금융교육은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전략이 미비하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금융교육은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금융교육을 주도할 주무관청의 지정과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체계적 정비를 하여 다학문 · 범교과적 학습을 실시하며, 민간기구와 연구단체 등과 협력으로 금융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에 힘쓰고, 교육 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전망

비교적 최근에 코딩교육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코딩교육 열풍은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 유치원 시기부터 코딩학원에 등록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코딩교육을 받을 생각은커녕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파다했다. 금융교육 차이는 코딩교육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표면으로 드러나게 이야기하면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지금까지 대부분 공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으로 볼 때, 돈을 소비, 저축, 투자하는 습관은 대체로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된다(조영석, 2010 : 1187). 즉, 부(富)가 대물림되듯이 가난한 습관도 대물림 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의무교육 속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교육이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성이 높은 의무교육 내 금융교육은 사회 간접 경험을 통한 금융지식 상승으로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금융교육

아가 예비 돈을 확보함으로써 돈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고 재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한진수, 2022 : 264).

은 성인기가 되어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교육의 발전이 계기가 되어 한국 금융체계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고상미, 김혜연, 남윤명, 한근진,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6권 제1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10.27., PP149-175

고호경, 장경윤, 이강천, '우리나라와 호주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학연구" 제26권 제2호, 대한수학교육학회, 2016.05.09., pp. 309-331

김경모,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시도된 통합과 주제 중심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경제교육연구" 제29권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22.08.10., PP. 29-53

김동진, '학교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경제수업 관련 어려움 분석', 교육종합연구원,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1, No.1, 2022.03.24., pp. 83-105

노혜민, 손상희, '청년층 소비자의 신용등급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2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06.19., pp. 1-27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판 14쇄, 민음인, 2018년, p26.

박주영, 김은미, 김민정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법학연구소, 2020.02.27., pp. 45-74

박형준, '한국과 미국의 학교 금융교육과정 비교', "교육연구" 제70집, 교육문제연구소, 2017.12.26., PP. 83-107

이윤호, '영국의 금융교육', "경제교육연구" 제28권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21.08.19., pp. 27-55

정세창, '국내 금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36권 6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21.11.08., pp. 261-279

조승모, '2020 개정 <초 · 중 · 고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한 비판과 제언', "경제교육연구" 제29권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22.08.16., pp. 169-201

조영석, 박송춘,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방향성 탐색', "대학경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대한경영학회, 2010.04.20., pp. 1185~1203

최윤정, 김예지,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 – 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7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03.21., pp. 217~245

최윤정, '싱가포르 금융교육 사례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5권 1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18.04.20., pp. 65-95

최종민, '경제교육의 정체성과 문제점', "경제교육연구" 제26권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19.08.20., pp. 1-20

한진수, '한국과 미국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비교', "시민교육연구" 제45권 1호, 2013.03.16., pp. 125-146

한진수,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금융 역량과 금융교육', "교육문화연구" 28권 제2호, 교육연구소, 2022.04.19., pp. 263-283

Bryan C. McCannon, 'Finance education and social preferences :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 4", Elsevier B.V., 2014.11.10., pp. 57-62

2. 기사 및 칼럼

안병준, 재테크 열풍에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은 낙제수준, '매일경제', 2021.11.10.
https://m.mk.co.kr/news/economy/10093146

3. 웹페이지
금융감독원 (2019.11.29.), '범교과 금융교육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교과서 속 금융',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menuNo=300018&check=2&contentsSlno=148&pageIndex=5&search=&searchWrd=&certYn=&eduTrgtCode=H&order=regDt
금융감독원 (2019.12.17.), '중 · 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 발간', 금융감독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5720&topic=O&pp=20&datecount=&recommend=&pg=
금융감독원 (2022.04.20.),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444&menuNo=200218&pageIndex=1
OECD(2013.06), 'Financial Education For Youth And In Schools - OECD/INFE Policy Guidance, Challenges and Case Studies. OECD',
https://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TrustFund2013_OECD_INFE_Finl_Ed_for_Youth_and_in_Schools.pdf